



세계 가금 생산 동향

- 아메리카 대륙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본고는 2012년 8월 15일 Poultry Site에 기고된 글로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의 닭고기 소비량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실려 있다.

2012년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주요 국가들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닭고기 물량에도 큰 변화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또한 닭고기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추세 변화는 대륙, 지역,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데, 닭고기 소비량 증가는 기본적으로 인구, 소득, 닭고기 가격, 식품 기호도 등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가금육 소비량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 증가이다. 세계 총인구는 2010년 69억 명에서 매년 1% 정도 증가하여 2030년에는 83억



번역
김 동 옥 농업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연간 2.1%씩 증가하여 인구 증가량의 38%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연간 0.8% 가량 증가하여 1억 7천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세계 총인구 중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5%에서 2030년에는 13.3%로 감소할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는 2007년 이후 세계 가금육 소비량에 관한 통계치를 갱신하지 않고 있다(표 1). 그러나 미국 농무성(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는 일부 주요 국가들의 닭고기 소비량을 조사했기에 이를 기초로 아메리카 대륙 주요 국가들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그림 1>과 <표 2>에 제시했다.

2012년 미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지육 기준)은 42.5kg으로 2011년 44.0kg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6년(46.0kg으로 최고치 기록)에 비해 4kg 가량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USDA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량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45.6kg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소비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2.7%씩 증가하여 자국 내 소비량이 12.8백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올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48.3kg인데, 예측대로



증가한다면 2021/22년에는 60.3kg에 달할 것이다.

브라질 국민의 가처분 소득(개인 소득 중 가계에서 소비·저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닭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향후 닭고기 소비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USDA에서는 브라질의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이 닭고기 소비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USDA에서는 2012년 멕시코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1년 31kg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저소득층에서는 넓적다리와 다리 부위가,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서는 고품질 닭고기 및 고부가 상품의 소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닭고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높은 탄력성을 갖추고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계란 다음으로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다.



〈표 1〉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별 인구 및 1인당 가금육/닭고기 소비량

국가	인구(백만명)			가금육 소비량(kg/인/년)		닭고기 소비량(kg/인/년)	
	2000	2010	2015	2000	2007	2007	2012(F)
앵귤라	#	#	#	-	-	-	-
앤티가바부다	0.1	0.1	0.1	50.5	57.9	-	-
아르헨티나	36.9	40.4	42.2	27.8	26.7	30	38
아루바	0.1	0.1	0.1	-	-	-	-
바하마	0.3	0.3	0.4	52.8	46.5	-	-
바베이도스	0.3	0.3	0.3	44.2	45.0	-	-
벨리즈	0.3	0.3	0.3	24.9	26.0	-	-
버뮤다	0.1	0.1	0.1	46.1	30.3	-	-
볼리비아	8.3	9.9	10.7	16.3	14.7	-	-
브라질	174.2	195.0	203.3	29.7	31.7	38	4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	-	-	-	-
캐나다	30.7	34.0	35.6	35.9	37.5	30	29
케이먼섬	0.1	0.1	0.1	-	-	-	-
칠레	15.4	17.1	17.9	27.0	34.3	30	32
콜롬비아	39.8	46.3	49.4	13.5	21.7	22	24
코스타리카	3.9	4.7	5.0	18.1	23.7	-	-
쿠바	11.1	11.3	11.2	10.9	14.4	14	17
도미니카	0.1	0.1	0.1	38.8	34.5	-	-
도미니카 공화국	8.6	9.9	10.6	24.2	35.6	-	-
에콰도르	12.4	14.5	15.5	15.5	25.3	-	-
엘살바도르	6.0	6.2	6.4	10.5	18.2	-	-
포클랜드 제도	#	#	#	-	-	-	-
프랑스령 기아나	0.2	0.2	0.3	-	-	-	-
그린란드	0.1	0.1	0.1	-	-	-	-
그레나다	0.1	0.1	0.1	26.5	32.8	-	-
과달루페	0.4	0.5	0.5	-	-	-	-
과테말라	11.2	14.4	16.3	13.4	15.8	17	17
가이아나	0.8	0.8	0.8	30.7	33.1	-	-
아이티	8.7	10.0	10.7	2.8	3.3	4	8
온두라스	6.2	7.6	8.4	13.7	21.6	-	-
자메이카	2.6	2.7	2.8	41.4	52.9	45	52
마르티니크	0.4	0.4	0.4	-	-	-	-
멕시코	100.0	113.4	120.1	22.3	29.4	28	31
몬세라트	#	#	#	-	-	-	-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0.2	0.2	0.2	67.1	54.9	-	-
니카라과	5.1	5.8	6.2	9.6	16.3	-	-
파나마	3.0	3.5	3.8	27.7	30.6	-	-
파라과이	5.3	6.5	7.0	6.5	8.2	-	-
페루	25.9	29.1	30.8	8.1	11.0	-	-
푸에르토리코	3.8	3.8	3.7	-	-	-	-
세인트 키츠네비스	.	0.1	0.1	42.0	48.2	-	-

* 뒷장에 표 이어짐.



국가	인구(백만명)			가금육 소비량(kg/인/년)		닭고기 소비량(kg/인/년)	
	2000	2010	2015	2000	2007	2007	2012(F)
세인트 루시아	0.2	0.2	0.2	62.9	56.8	-	-
세인트 피에르미론	#	#	#	-	-	-	-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0.1	0.1	0.1	49.8	52.3	-	-
수리남	0.5	0.5	0.6	28.2	34.6	-	-
트리니다드토바고	1.3	1.3	1.4	25.5	34.2	-	-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	#	#	-	-	-	-
미국	282.5	310.4	323.9	46.8	50.7	45	42
우루과이	3.3	3.4	3.4	16.4	14.1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0.1	0.1	0.1	-	-	-	-
베네수엘라	24.4	29.0	31.2	28.4	28.7	32	29
아메리카	834,718	934,610	982,077	31.6	35.3	-	-
전세계	6,122,769	6,895,888	7,284,293	10.9	12.6	-	-

※ # 50,000명 미만, - : 통계치 없음, F : 예상치
 ※ 출처 : FAO, USDA, FAPRI

2012년 초에 자국의 닭고기 가격이 20%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 4/4분기 닭고기 가격(신선육 기준)은 kg당 21.5 페소로 소고기(38.6 페소)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다. 이 기간동안 민간 부문에서의 닭고기 판매 형태는 생닭 형태가 31%, 구이용 업체에서 24%, 공공 시장 20%, 체인점 15%, 조각/부분육 형태 7%, 고부가 상품으로 3% 가량 판매되었다. 2012년에는 생닭 형태로의 판매가 총 육계 판매량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신선/냉장/냉동 닭다리(CLQ, chicken leg quarter)의 반덤핑 규제(Anti-dumping

: 특정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 제품에 비해 매우 낮을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최종 결정이 보류되기는 했으나 멕시코 경제사무국(Mexico's Secretariat of Economy)은 자국 내 물가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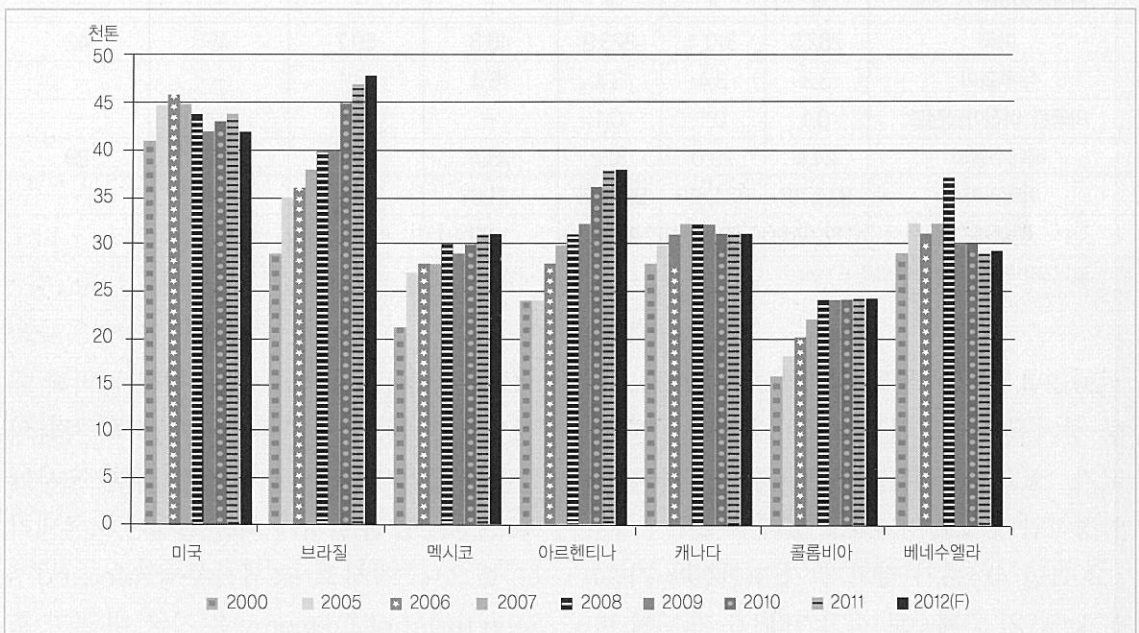
무역 분쟁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통계 모델을 사용한 아이오와 주립 대학의 보고서에서는 관세 부과는 닭다리 250,000톤의 수입을 중단시키고, 이들은 통닭 79,000톤 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산 닭다리의 수입 제한 조치는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는 자국 내 닭고기 생산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이렇게 생산된 닭들은 수입된 미국산 닭다리에 비해 고가로 판매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멕시코(특히 북부지역)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며 값싼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9kg에서 38kg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44~45kg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소비량 증가의 주요 요인은 소고기 생산/공급의 감소로 인한 소고기 가격 상승에



〈그림 1〉 아메리카 대륙 주요국의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kg/인)

〈표 2〉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국가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변화

(단위 : 천톤)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F
미국	41	41	43	43	45	45	46	45	44	42	43	44	42
브라질	29	30	32	31	32	35	36	38	40	40	45	47	48
멕시코	21	23	24	25	26	27	28	28	30	29	30	31	31
아르헨티나	24	23	16	19	22	24	28	30	31	32	36	38	38
캐나다	28	29	29	29	30	31	32	32	32	31	31	31	31
콜롬비아	16	16	17	17	17	18	20	22	24	24	24	24	24
베네수엘라	29	36	36	28	30	32	31	32	37	30	30	29	29

※ 출처 : USDA, 캐나다 통계



2012년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주요 국가들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또한 닭고기와 소고기 간의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져 닭고기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SDA 보고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소고기 1kg 구입 가격으로 닭고기 3kg을 구입할 수 있는데, 2008년에는 1kg 구입 가격으로 2kg을, 2009년에는 2.5kg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닭고기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저가의 가금육 생산·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시행에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운임환급제(Rebate system)를 통해 사료비를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가금육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저지방 육류라고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닭고기 소비의 35%가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아르헨티나에서는 닭고기를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대체 육류 및 보조 육류 정도로 여겼으나 현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3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인구 증가(1980년 24.5백만명→ 2010년 34.0백만명)에 따른 결과이나, 닭고기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육류에 비해 건강에 좋다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역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은 성숙되어 있으나 닭고기 공급량은 인구 증가 추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31.7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1년에 30.9kg, 2012년에는 30.8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경우 가격은 닭고기 소비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아니다. 실제로 공급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일시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 출처

: <http://www.thepoultrysite.com/articles/2560/global-poultry-trends-chicken-output-to-exceed-40mt-in-2013-in-the-americas>